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1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참된 겸손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을 부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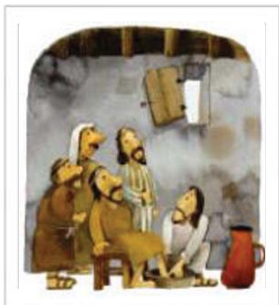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겸손의 모범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하느님, 이 자리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진행자 사진을 보고 겸손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어떠한 모습이 삶 속에서 겸손을 드러내는 모습인지 실천적인 면에서 나누어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어느 한 분께서 묵상구절을 읽어 주십시오.

겸손한 신앙인

겸손은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 무턱대고 자기를 낮추거나 멸시하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데서 출발하는 덕목입니다. 또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위나 위치가 주는 권위를 드러내야 할 때에도 분에 넘치는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하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겸손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내 삶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나라는 존재의 참된 주인이신 하느님의 주권을 믿고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기쁨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찾고 따라갔던 삶을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말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 할 때 당신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종의 의무로서 주인의 명령을 실행하는 종처럼 묵묵히 실천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는 하느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덜 소중해서 혹은 말 그대로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참된 기쁨을 누리리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 서현승 신부, 생활성서의 ‘소금항아리’ 중에서

혹시 겸손이라는 라틴어는 땅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흙에서 빚어진 땅의 존재인 사람이 자신의 바탕인 땅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라고 합니다. 뭉개지기 쉬운 땅의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서로 뭉개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로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하늘과 땅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부릅니다.

궁금
했어요

상본(像本)과 이콘(Icon)

상본(像本)이라는 말은 중국천주교회에는 없는 한국 천주교회의 용어다. 예수회에 의해 처음으로 중국에 성화(聖畵)가 전파되었을 때 부작용이 속출했다. 마치 부적(符籙)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이 점을 우려하여 성화가 한국에 전파될 때 성화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불렀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세웠다. 상본(像本)이라는 말은 그 형상-상(像)의 근본-본(本)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모든 성인은 잡신(雜神)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의인들로서 그 그림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 하느님의 영광과 성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본의 인물과 그림의 내용이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하느님으로 귀결되며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때 성인이 된다는 내용이며 절대로 부적처럼 사용하거나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성경이나 기도서에 책갈피처럼 사용하게 허락하였고 세례나 영명축일 때 선물하도록 하였다. 상본(像本)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용어다. 한국천주교회의 초기 교우들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상숭배로 흐를 수 있는 성화(聖畵)가 아닌 상본(像本)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요한 12,45)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다 가깝게 다가갔다. 8세기 초 성화에 대한 종교적 공경을 이교적 우상숭배로 배격하면서 ‘성화 파괴 운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729년부터 성화 파괴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반론을 제기했다. 그리스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성부의 “모상”(이콘)이시며(콜로 1,15) 따라서 그림으로도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787년에 열린 제7차 니케아공의회에서 성화에 대한 ‘공경’이 엄숙히 승인되었고, 원상(原象)에 대한 ‘흠숭’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유보된다는 교의결정문을 공포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위하여

진동성당 1구역 1반을 찾아서

“1구역 1반이 그리 잘 되고 있는 곳은 아녜요.”

본당 구역분과장님들께 소공동체 소개 원고 청탁 서신을 보내게 되면, 대부분 본당에서 잘 되고 있는 소공동체를 소개해주십니다. 고민하신 끝에 잘 되고 있는 곳은 아니라며 소개해주신 곳은 진동성당 1구역 1반. 때문에 조심스러움도 있었지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마을 입구엔 지붕이 있는 우물과 오래된 나무가 이곳이 오래된 마을임을 알려줍니다. 국도변으로 늘어선 가게들만 보아왔던 터라, 논과 밭 사이로 짓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진동의 모습은 사뭇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고, 이처럼 일찍 해가 저무는 겨울엔 모이는 것이 힘들시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던 때 도나다 자매님께서 마을 입구로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이 집에 평화를 빙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한분씩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 들어오시는 분들의 첫인사는 모두 같습니다. “이 집에 평화를 빙니다!” 아마도 미리 인사를 정해두셨던 모양입니다. 직장 일로, 또 집안 일로 서둘러 오느라고 했지만, 늦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쉼을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실감했습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오늘 말씀은 표리부동한 바리사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자선냄비에 적은 돈도 넣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냉장

고 속 가득 찬 음식들을 버리게 되는 때의 죄스러움, 작은 자선부터 베풀어야겠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떠올리며 그 의로움을 이해 살아가야겠다는 등 나눔과 베품에 대한 자기 반성과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자기 반성과 나눔 때문일까요? 직장 관계로 요즘들어 몇 차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요한 형제님은 한동안 나오지 못하다 오니 스스로가 정화되는 느낌이라며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위하여

1구역 1반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부활계란나누기를 한다고 합니다. 동네 노인정과 선교 대상으로 점찍었던 분들, 그리고 냉담 중인 가정과 오랜 병고에 지친 가정을 찾아 계란 나누기를 하면서 선교 대상이던 분들이 냉담자였던 것을 알아내기도 한다지요. 지역 특성상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유교 문화와 무속 신앙에 젖어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복음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실천하는 삶, 표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함께 노력하신다는 진동본당 1구역 1반. 모임 후 간식으로 나온 빛 고운 호박죽을 보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임을 이어나가고, 그 속에서 삶이 영글고 무르익다보면 누군가의 추위와 허기를 잊게 하는 그런 따끈한 호박죽 한 그릇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늘 노력하신다는 1구역 1반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진동성당 1구역 1반 소공동체〉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